

중장기 계획 및 혁신적 방안 구상팀, 종합 보고서

○ 팀원 구성

팀장 : 조남일

교역자 : 마재열

팀원 : 박귀화 최부선 원윤희 이순중 이수영 홍승현 김영찬

○ 목표 설정

다음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만의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문화와 전통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중장기적인 다음세대 교육의 토대를 형성한다.

○ 모임 진행

구분	날짜	모임의 목표 및 내용
1차	3월 22일(수)	팀원소개 및 인사, 목표 방향에 대한 토의
2차	4월 2일(주일)	구체적 활동에 대한 활동 논의, 각 프로그램 연구/조사 분담
3차	4월 16일(주일)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 검토/보완/논의
4차	4월 30일(주일)	인성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 검토/보완/논의
5차	5월 14일(주일)	미취학 / 초등학생 부모 간담회 진행
6차	6월 4일(주일)	중고등학생 부모 / 싱크청년부 간담회 진행
7차	6월 18일(주일)	시애틀 위원회와 토의 및 사업 구체화
8차	6월 30일(금)	영어캠프 WOLKO 현장 탐방 및 사업 구체화
9차	8월 20일(주일)	다음세대 주말학교 시범운영
10차	9월 3일(주일)	부모 / 교사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 논의
11차	9월 10일(주일)	팀원 마지막 회의 및 활동 평가
12차	9월 10일 이후	마무리 보고서 작성

○ 종합 보고 내용

- 1) 부모/청년 간담회 결과 보고
- 2) 영어캠프(WOLKO) 현장 탐방 결과 보고
- 3) 2024년 시애틀 사업 계획 보고
- 4) 주말학교 시범운영 결과 보고
- 5) 홈스쿨 독서클럽 기획안

부모/청년 간담회 결과 보고

○ 개요

다음세대위원회 중장기계획팀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다음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와 청년들을 초청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 프로그램임.

○ 취지

- 가. 다음세대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내용을 공유한다.
- 나. 교회가 다음세대 문제에 있어서 부모와 함께 하고자 함을 느끼게 한다.
- 다. 다음세대를 위한 일에 부모님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임감을 고무시킨다.
- 라. 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중장기 계획에 참고한다.

○ 간담회 대상

구 분	사무엘부서	요셉부서	다윗부서	싱크청년부서
대 상	미취학 부모	초등학생 부모	중/고등학생 부모	청년 전체
날 짜	5월 14일 (주일)		6월 4일 (주일)	
시 간	오후 1시	오후 2시	오후 2시	오후 3시
장 소	603호	401A호	1001호	202호
담 당 자	김호진	최윤정	마재열	고대곤 / 김은우

○ 진행 순서

- 1) 교육목사가 다음세대위원회의 사역구조와 활동을 브리핑 (10분)
- 2) 부모들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 (45분~90분)

[간담회 사진]



○ 미취학 간담회 보고

1. 현재 진행되는 사역이 주일 중심의 사역을 말하는 것인가?

- 주일 사역이 현실적으로 메인이지만, 주말/평일/방학으로 확장해서 생각하고 있다. 거주지가 멀면 아주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고민과 보완이 필요하다.

2. 영어캠프는 시애틀을 말하는 것인가?

- 영어캠프는 연령대별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
- 시애틀은 실제로 해외로 나가는 것이고, 아무래도 연령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보낼 수 있는 영어캠프가 있었으면 좋겠다.

3. 연령대별 활동지나 자료를 통해 가정에서 동네세메줄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4. 교회에 다음세대 관련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 동네세메줄 성경 하나만으로는 신앙교육의 한계를 느낀다.

- 정철 기독교 영어프로그램이나, 어와나, 어성경과 같은 프로그램의 니즈가 있다.
- 동네세메줄 성경을 교재로 생각해선 곤란하다. 이것은 성경이다.
- 동네세메줄 성경의 컨셉은 아이들에게 최종적으로 성경만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쉬운버전의 동네세메줄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 동네세메줄 성경을 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5. 다자녀인 경우, 여름성경학교를 할 때 한달에 세번씩 가야해서 힘들다. 성경학교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 통합에 대한 니즈도 알고 있고, 올해 진행도 했었으나 불발이 되었다.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다시 반영해서 진행해보겠다. 매년은 어렵지만 이벤트성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
- 전체 통합은 못하더라도 여건에 따라 사무엘/요셉으로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

6. 현재는 교회학교에 아이들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기에, 예배의 내용이나 분위기나 태도에 대해 부모가 전달 받을 기회가 없다. 개별 선생님 면담이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 이것은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각 부서의 부모 상담 기간을 정해서 부모와의 대화 소통의 창구로 준비하도록 하겠다.

7. 부모교육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부모교육에 대한 교회의 계획이 있는가?

- 부모교육이 진행된다면 연령대별 교육이 될 것 같고, 6~8주의 커리큘럼을 수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
- 커리큘럼을 수료하면 시애틀을 보내주는 식으로 명확한 동기부여를 주는 교회도 있다.
-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갈 수 있으며,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다.
-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가정예배학교가 가장 먼저 시행할 것 같다.

8. 학교에서 참관수업을 하는 것처럼, 부모가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예배이기 때문에 참관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은 부모의 니즈를 반영해 부서 재량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를 정기적으로 기획하는 것은 가능하다.

9. 동네세메줄 성경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아이들에게는 힘든 시간으로만 인식되어 성경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 어린이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법들을 동네세메줄성경 팀에서 구상중이다.
- 차주의 성경본문으로 설교를 먼저 하고, 그 후에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방법이 있다.
- 게임, 놀이 등을 통해 아이들이 먼저 부모에게 성경관련 놀이나 예배를 요청해 볼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 이 모든 것들을 가정예배서로 구상하고 있다. 가정에서 그 주의 본문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10. 매일매일 묵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 수준에 맞는 내용을 유튜브로 만들어 올려줬으면 좋겠다.

- 우리의 목표는 부모님과 함께 가정예배를 한주에 한번이라도 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11. 어린이에 맞춘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성경 버전의 동네세메줄이 나왔으면 좋겠다.

12. 연결과 소통의 창구를 단순화시켜야 할 것 같다. 부모와 교회학교와의 소통이 어렵다.

13. 태영사무엘부터 소년요셉까지 교육부서에서 사용되는 찬양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것을 가정에서도 활용하기가 수월해진다.

- 교사들이 모여서 같은 노래, 같은 율동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 워십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14. 수요일예배 때, 아이들을 위한 예배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 현재는 태영부서에서 아이들이 그냥 모여서 노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아이들 예배나, 혹은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 4/5층을 열어서 아이들과 함께 대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함께 어른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3층에서 데리고 있기가 너무 눈치 보인다.

○ 초등 간담회 보고

1. 어린이 주일 예배 마지막에 아이들이 한 번에 강단에 올랐는데, 안전 문제에 신경을 써 달라. 이번 어린이주일이 너무 위험했다.

- 이번에는 동소훈 수료로 특별히 장소가 협소했다. 하지만 매번 그런 것은 아니기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다.

2. 교회가 소그룹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데, 아이들도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8주간의 다음세대 소그룹 인도자 훈련을 기획하고 있다. 진행하겠다.
- 아이들 소그룹을 위한 장소/분위기/간식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 담당목회자들이 말씀배경 및 신앙질문 등의 아이들의 말씀묵상을 도와 줄 자료를 공유하여 주면 좋겠다.

4. 대부분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직장 때문에 바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버지가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버지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가정에서 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제는 부모가 아이들

에게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방법과 자료가 필요하다.

- 차주 목상 본문을 미리 설교하는 방법을 통해 차주 목상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생각중이다.

6.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예배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삶의 현실에서는 각 가정이 혼자서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외로운 싸움이다. 이것을 교회에서 확인하고, 독려하고,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가정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7. 부서별로 부모초청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 아이가 어떤 찬양,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부모로서 궁금하다.
- 분기나 반기별로 한 번씩 공식적인 초청 예배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8. 교회가 지역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계획과 방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

-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가 아닌 것 때문에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 종식과 함께 지역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9. 전도초청잔치 같은 페스티벌을 하면 좋을 것 같다.

- 친구를 초청해서 예배하고, 그 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식의 축제예배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들을 전하고, 지역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10. 지금 다음세대 위원회와 부모 간담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영어캠프와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 만일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 어떤 위원회보다 중심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고, 가시적으로 진정성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 교사의 헌신과 열정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 다음세대를 위한 이 위원회가 앞으로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위원회였으면 한다.
- 30-40대 부모들의 모임과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11. 교사의 헌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방과 후 프로그램도 양질의 프로그램이 나오고,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뭔가를 해야 한다.

12. 간담회의 취지가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설명하는 자리 정도에 불과한 느낌이다. 부모들만의 소그룹을 만들어 공통 관심사 별로 논의해서 정해진 요구사항을 듣고 반영해 달라.

13. 영어캠프와 시애틀 프로그램을 아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부모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별 간담회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부모들의 심층적인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14. 매번 간담회를 할 수 없고, 다들 거주지도 다르기에 교회 홈페이지에 디지털 소통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 홈페이지에 부모들의 니즈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시판을 통해 정보가 쌓이면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동네세메줄 성경이나 말씀에 대해 궁금할 것을 물어볼 수 있는 Q&A 게시판도 있었으면 좋겠다.

15. 달란트 시장이나 부서에서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때,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과 기독교 교육에 맞는 생각과 분별이 필요하다.

- 포켓몬스터(진화론)나, 신비아파트(요괴), 스타벅스 카드(사이렌 로고) 같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눠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

16. 6층 축구장을 이용할 때에, 큰 아이들이 있으면 작은 아이들이 놀지 못해서 기준과 제한이 필요하다.

- 제한은 되어 있으나, 다들 누군가의 아이들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 큰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전혀 없어서 큰 아이들도 답답하다.
-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위해 공을 살살차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공동체 교육이다.

17. 교육부서 찬양의 통합이 공식적으로 필요하다.

- 아이들이 진급할 때마다 이전부서에서 불렀던 찬양과 일치된 울동을 한다면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된다.
- 영상으로 제작을 하던지 해서 부서에서 통일하고,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온가족예배 때 다 함께 공유된 어린이 찬양과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18. 어린이 주일에는 지금보다 더 아이들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면 좋겠다.

-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지정하고 계획해서 정말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준비하고
- 마당에 솜사탕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나, 풍선 가게 등으로 지역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도 상영하는 등 더 아이들이 정말 어린이주일에 하루종일 교회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19. 교회에서 교육부서에 대한 예산 지원이 늘어나면 좋겠다.

○ 중/고등부 간담회 보고

1. 다윗부서도 꿈인처럼 전용 사용공간이 있었으면 아이들이 예배 후에 교회에 남아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북카페, 방과 후 교실, 묵상을 나눌 공간 등)

- 공간재배치 위원회에서 학생들 독서실에 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재배치 위원회와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2. 학업/신앙교육에 있어서 사춘기 아이들을 기르며 가정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 참고하여 진행해보겠고, 또한 부서별로 상담 기간을 두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 그것은 목회자가 상담해줘야 할 일이고, 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일인데 미흡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낍니다.

3. 중/고등부가 현재 합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의 예배만 합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혹은 분리가 더 맞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 현재는 예배만 합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서를 합치거나 나누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합쳐서 잘하는 교회가 있고, 나눠서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결국 구조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예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설명이나 절차에 대한 아쉬움이 큼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교회에 친구가 없어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안이 있습니까?
 - 과정이 불친절하고 강압적이고 통보식이었던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의 구조가 많이 달라지고, 코로나는 겪고, 또 지금은 학교가 전부 달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천천히 해 나가겠습니다.
5. 부모로서 아이가 해당 교육부서의 활동 및 교육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에는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 그 점에 대해서 동네세메줄성경팀에서 동네세메줄성경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할지 가정예배서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부서의 교육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더욱 소통하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기획하겠습니다.
6. 교사-학부모 간의 소통/상담 창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모들만의 기도회 모임과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 교사와 학부모간의 소통은 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로 상담기간을 두고 부모님들을 만나든지 혹은 자유롭게 소통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던지 부서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모들만의 기도회와 모임은 따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많은 일들로 제한이 되고 있고, 여전도회 기도회도 금요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공통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제안해 볼 수 있으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7. 학생, 교사, 부모가 함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회도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련회나 여러 행사 기간에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싱크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서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새로 만들기보다 있는 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 지금 교육부서들은 각 부서별로 특징은 잘 드러나 좋은 점도 있으나 부서별로 단절이 심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년 동안 교육부에서 자라도 친구가 없고, 늘 새롭게 적응해야 합니다. 소그룹도 어렵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서 간의 연계성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름성경학교를 함께 해보려고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코로나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하나씩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9. 고등부 2학년에는 여학생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전도의 방법이나, 교회에 오게 하는 환경적인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방과 후에 공부방이나 친구들과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혼자가 아니라 친구라도 데리고 올 텐데, 지금은 친구에게 미안해서 전도도 못합니다.
 - 교회에 공부방을 마련하고 과외 프로그램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라 성경과 신앙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 오후에 아무 프로그램이 없고 아이들이 머물만한 동기가 없는 것은 공감합니다.
10. 부모와 교사 간의 입장과 원하는 바에 대한 간극이 큰 것 같습니다. 또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간의 간극도 크고, 교역자와 교사들 간의 간극도 크고, 각 부서 부장/부감들의 간극도 커 보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되나

요? 안된다면 해결책이나 이에 대한 노력이 있나요?

- 교역자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것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 부모와 교사는 아무래도 위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처럼 계속 소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동시에 교사분들은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고 애써주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 교회에서 외부의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이나 뮤지컬이나 찬양 팀도 섭외하고, 이벤트 같은 행사도 할 수 있게 교회에서 재정을 잘 지원해줘서,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고 자랑할 수 있는 부서 활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교육부서에 대한 재정지원 정도가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대한 재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13. 교회에 어울릴 친구가 없다는 것이 현재 다윗부서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려면 교회와 아이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14. 참석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 가정예배, 말씀묵상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15. 청년부와 연계된 말씀묵상과 영어, 수학 과외 공부방, 악기 예술 교육 등, 청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놀고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사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교육부서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소통과 연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시애틀 첫 회에 보낸 학부모로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다시 시행된다면 아이들이 사전에 미국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인 시애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공부의 비중보다는 더 글로벌적인 경험을 하는 목적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동의합니다. 3주로 영어 실력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견문을 넓히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또 가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선행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담당 부서 목회자들이 너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음세대를 담당하시는 목회자 분들은 담당부서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 다음에 부모간담회가 또 이루어진다면, 교회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역 방안을 가지고 부모들에게도 봉사 및 지원을 요청할 사항들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19. 교회, 사역자, 교사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한계가 분명하다고 느껴집니다. 부모

들이 너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역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신앙 교육은 부모의 역할이고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 사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강단에서 만나는 시간으로 신앙을 형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고, 가정을 돕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동네세메줄 성경을 잘 가르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키우면서 이런 부모간담회는 처음입니다. 참 감사하고, 교역자 분들도 애써주시는 것 알고, 또 우리 교회만큼 사실 누리고 있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 노력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시설면에서도 재정적으로도 사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 간담회 보고

1. 코로나 이후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일방적이지 않게 연간 계획을 미리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싱크의 일정과 늘 겹쳐서 혼란스럽습니다. 또 계획의 변경이 많아서 늘 차질이 생기는데 변경을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 맞습니다. 변동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새신자들이 잘 스며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를 위해 청년들이 활용할 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늘 권사님들 모임과 겹쳐서 쫓겨 다니는데, 청년들만의 나눔 공간을 따로 정해줄 수 있을까요?

- 행정실에서 나름 공간을 예약하고 시간을 정해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 잘 논의하고 시간을 배정해서 어른들과 시간과 장소를 잘 나누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싱크 사무실이 현재 5층인데, 항상 잠겨있고, 좁고, 교육부 예배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불편합니다. 싱크 사무실을 옮길 수 있을까요? 옮길 수 없다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공간재배치 위원회에 이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4. 행사를 준비할 때, 타 종교라도 올 수 있게 흥미를 느끼도록 기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과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심각성을 교회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 교회 또한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5. 동네세메줄성경 목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초신자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 먼저 동네세메줄성경은 목상지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아니라 목상 보조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세대위원회 동네세메줄팀에서 연령대에 맞는 보조자료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도 싱크부서 내에서 청년들의 언어로 청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동네세메줄을 잘 활용하고 목상하는 것을 보여주면 초신자들도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모든 연령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기는 힘들고, 부서별로 부서특성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 우리는 큰 교회의 범주에 있지만, 청년부 자체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큰 공간의 장점과 작은 공동체의 장점을

둘 다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신앙의 선배와 친구들이 지금의 나를 교회에 있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신앙의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세대에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함께 예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부 내에서도 나이차이가 크기 때문에 청년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청년과 중/고등부 사역들이 함께 서로 융화되고 끌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중/고등부를 위한 제자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나온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런 소그룹 안에서 성경을 배울 시간이 없었던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 지금 다음세대위원회에서는 청년들처럼 중고등부 아이들도 또래 안에서 말씀묵상 소그룹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경험하는 것과 또래 커뮤니티의 문제를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 싱크에는 40세가 넘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혼 전 만 40세는 교구로 편성되기에 자연스러운 연계나 이동을 위한 청년 졸업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의 모임 등)

- 샘나 공동체가 싱크와 교구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샘나 공동체 모임을 주일 오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자녀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가 많기는 합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의 모임은 현재 없고,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교구와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이후에 어느 교구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교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청년부가 와서 설명하는 자리처럼, 교구에서 와서 설명하는 시간)

- 좋은 의견입니다. 현재 싱크는 나이로 구분하고 교구는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가 지역으로 들어가면 전혀 또래그룹이나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이로 구분하고자 한다면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싱크의 요청은 남전도회/여전도회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교구로 올라가면 나이와 환경적인 문제로 정착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싱크에서 먼저 그룹을 형성해서 교구에 올려주면 정착이 그나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공동체가 샘나공동체입니다.

10.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청년에 가깝거나, 혹은 결혼하고서도 청년부 예배드리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40대가 넘는 샘나 구성원에 들어가기 부담스럽습니다.

- 샘나에는 40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대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또 20대들도 들어와야 다른 20대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샘나는 생각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30-40대에 아이가 없거나, 20대에 아이가 있거나, 여러 모양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린 그룹의 경우 첫 발자국을 떼서 버텨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버텨서 기혼자들이 부담을 줄이고 샘나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11. 우리 교회는 이제 지역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고등부 25명 중 거의 모든 학생이 각자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도 지역교회 시스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금 다음세대위원회를 하고 있고, 리서치팀에서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싱크는 부모와 분리된 성인으로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니즈를 싱크내에서 잘 파악을 해서 제안해주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 3부 예배에도 담임목사님이 축도를 해주시고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목사님이 설교만 하시고 가시는데, 담임목사님과 관계성이나 접촉점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 이 내용을 그대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13. 청년은 삶의 모양과 필요한 말씀의 내용이 장년들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더욱 맞는 설교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맞는 설교를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 맡아서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설교와 어린이목상자료가 필요하듯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14. 3부 예배를 교회 자체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늘 3부 예배 장소가 변경되고 취소되며, 중간에 행사 준비를 하시고, 기도회 소리로 예배에 지장을 받는 등, 청년 예배가 예배 전후로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데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 3부 예배가 청년부 예배인지, 교회 전체의 예배이지만 청년부가 주관해서 드리는 대예배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 제안을 할 때, 정말 원하는 것이 3부 예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많은 청년부 내에 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할 텐데 가능한지에 대한 가늠도 해보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과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 3부 예배가 존중받지 못하고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간의 소통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간담회 같은 노력을 통해 서로 열린 공간에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인이고,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만 이루어진다면 서로 충분히 기브 앤 테이크하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동의합니다. 청년부간담회 요청하시면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16. 간담회의 장로님들도 모셔놓고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간담회는 다음세대위원회에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간담회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요청할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자신 있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과 담임목사님 다 모실 수 있습니다.
17. 카나프 팀은 연습실이 없어서 외부 공간을 사비로 빌려서 사용합니다. 장소를 제공해주세요.
- 공간재배치 위원회에서 거울을 설치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18. 청년들을 교사로 섬기게 하려면 후보에 한 줄 넣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박람회 등을 통해서 초청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청년들이 교사로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광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교사를 하기에는 청년부 예배나 사역과 시간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교사 지원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세대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어떻게 교사로 즐겁게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TEAM FEEDBACK]

마재열 : 이번에 진행한 부모/청년 간담회는 어떠셨나요? 부모간담회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귀화 :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하는 것이 좋지요.

홍승현 : 맞아요. 그렇지만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었던 많은 피드백은 부모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간담회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답답함만 가중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교회의 방향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간담회라면 부모들의 소리를 듣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의견을 내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이 간담회만 반복된다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마재열 :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저도 간담회의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부모님들의 소리를 어쨌든 듣는다는 것이고, 단점은 작은 문제도 증폭시켜서 큰 문제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부모님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교역자의 어려움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어를 하다 보면 벽 같이 느껴지고, 수용을 하다 보면 분별이 없이 받을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홍승현 : 맞아요. 자리에 따라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마재열 : 그러면 방식이 달라진다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홍승현 : 어차피 연말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제안을 받고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도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부모들의 소리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귀화 : 일 년에 그래도 두어 번 진행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재열 : 마지막 전체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다음세대위원회가 더 길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육위원회가 이관받아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모 간담회가 더 진행이 된다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재열 : 간담회의 내용의 중점은 동네세메줄 사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많고, 이와 연계해서 부모교육에 대한 것들이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네세메줄팀에서 가정을 도와 동네세메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던 것이지요. 이에 대한 부모님들의 피드백은 어떠했나요?

홍승현 : 저희 어린사무엘에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많지는 않은 분량이었지만, 그래도 말씀묵상에 관심을 가지고 하려는 의지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부교재의 활용가치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조남일 : 반응이 좋았다니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가정을 돕는 교재를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홍승현 : 맞아요, 부서에서 설교도 한 주전의 내용을 가지고 하던 것에서, 월요일부터 할 것에 대한 설교를 미리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주일에 들은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재열 : 네, 이런 것들이 부모간담회에서 나온 요청에 대한 피드백이었고, 간담회가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이 다음세대위원회 사역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들게 된다면 이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 부서에서 부서 담당목회자가 부서특성에 맞게 각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서목회자는 이번 사역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부서 내에서 동네세메줄 사용을 위해 무엇인가를 항상 준비하고 시도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승현 :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하나의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부서마다 너무나 각개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디렉터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육전공자이건, 부교재를 만들어본 전문가가 한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홍승현 : 보통 가정애, 자녀를 한 명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두세 명을 키우시는 분들은 각 자녀마다 교재와 내용이 다 다르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하나 잡아주면, 연령별로 활동은 다를지라도 하나의 주제로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본문 또는 주제를 통합하여 가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재열 : 맞네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홍승현 부감님이 말씀하신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렵습니다. 전문가란 교육학 전공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승현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는 다음세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재열 : 학위가 아니지요?

홍승현 : 네, 전문가라고 해서 학위, 자격,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에 대해서 전혀 마음도 없는 사람과 다음세대에 대한 중요성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재열 : 옳은 말씀이십니다. 학위가 있어도 박사들은 또 현장을 잘 모르기 마련이고, 현장에서는 공부 못해도 사람 좋은 것이 목회적으로 더 필요할 때도 있으며, 또 현장에서 10년, 20년 하면 없던 전문성도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늘 나오는 주제인 교육전문가와 디렉터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했습니다.

홍승현 : 제가 말씀드리려는 전문가는, 적어도 글씨도 모르는 미취학 아이들에게 글씨에 대한 활동을 준다면가 이런 것들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주고,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런 디테일을 잘 배려하면서 융합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일수도 있고, 혹은 성도들 중에 탁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다만, 무조건 헌신과 봉사만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재열 : 맞아요. 그것이 항상 딜레마이지요.

홍승현 : 네, 이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요구하는 자리이다 보니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재열 :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이 이번 간담회였습니다. 이런저런 불만들도 많았지만 결국 속에 가지고만 있었던 말들을 꺼내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종종 이런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귀화 :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조남일 : 저는 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교육부서에 오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교사도 청소년 때 잠깐 했던 것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문외한인데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책을 많이 합니다.

마재열 : 목회자들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현재의 보직을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닌데,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비전이나 사명이 없는 사람이 굴러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 잘못입니다. 주어진 자리에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마재열 :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모 간담회가 꼭 교육위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할 필요 없이 각 부서에서 담당하여서, 부서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떤가요? 부서에 필요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가벼우면서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박귀화 :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겠네요.

마재열 :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더 성격에 맞지 않을까요?

조남일 : 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영어캠프(WOLKO) 현장 탐방 결과 보고

○ 목 적

우리 교회 다음세대들이 참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WOLKO 영어캠프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WOLKO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함

○ 팀원 구성

- 전체 팀원 : 조남일, 박귀화, 최부선, 원윤희, 이순중, 이수영, 홍승현, 김영찬, 마재열

○ 방문 일정

- 일 시 : 6월 30일 (금), 오전 11시
-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407 KR, 월코센터 2층
- 인터뷰 : 월코 코리아, 채병국 선교사
- 방문 팀원 : 마재열, 원윤희, 최부선, 김영찬
- 출 발 : 당일 오전 9시 / 성락성결교회 정문
- 도 착 : 당일 오후 3시
- 일 정 : 출발(9:00) - 월코센터 도착(11:00) - 캠프 장소/환경 탐방(11:20) - 담당자 인터뷰(12:00) - 점심식사(13:00) - 귀가(15:00)

○ 질문 내용

1) 월코의 목적과 방향 관련 질문

- 월코의 프로그램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신앙과 영어의 비중)
- 학생들의 신앙적 변화를 위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캠프 후에 기대할 수 있는 아이들의 신앙적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한 명이 주기적으로 캠프에 반복해서 참여한다면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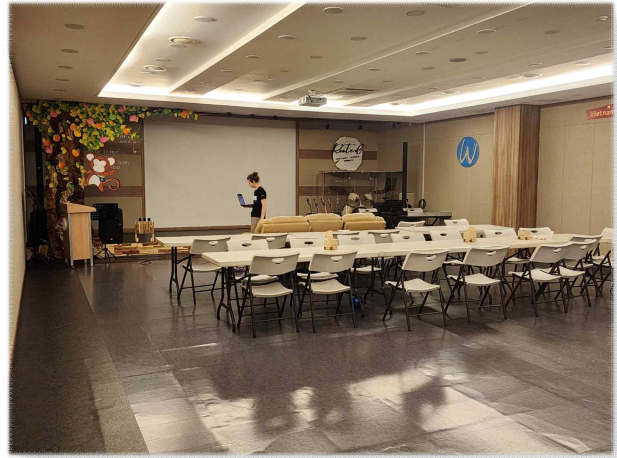
2) 월코 프로그램 관련 질문

- 모멘텀 캠프와 일반 육지캠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일반 캠프와 SYME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SYME은 대안학교입니까?
- 프로그램의 연령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방학 프로그램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 각 캠프 별로 인원 모집은 어느정도 하고 있으며, 신청율은 어떠합니까?
- 캠프 후 재참여하는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3) 우리 교회와 협력 관련 질문

-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캠프에 보내게 된다면, 서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인원 제한, 성락성결교회 티오(TO) 마련, 팀 구성 등)
- 교회에서 사전 교육 또는 후속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신청 인원이 많으면, 월코 여름/겨울 캠프를 우리 교회만의 캠프로 따로 일정 구성이 가능할까요?
- 추후에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가 가능할까요?
- 교회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현장 방문 사진]



○ 인터뷰 내용

0) 월코의 대해서

- 월코는 한국에서 사역한지 30년 정도 된 전통있는 선교단체이며, 전세계에 퍼져있고, 네트워킹 되어 있다.
- 월코는 신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SYME이라는 영어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 방학 때, 20-50명 정도의 캠프를 진행한다. 영어로 열심히 놀고 집회하는 것을 반복하는 캠프다.
- 기독교 학교에도 찾아가서 1시간반 정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 월코는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코칭하기도 하지만, 청소년 사역자들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1) 월코의 목적과 방향 관련 질문

- 월코에서 단기간 영어로 생활하고 배운다고 해서 영어실력이 일취월장하지 않습니다. 월코는 영어를 도구로 사용하되, 학생들이 서로 교제하며, 성령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월코에서는 사영리를 기반으로 한 월코만의 "120" 복음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깨닫게 합니다.
- 모든 학생들이 캠프에서 한 순간에 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게 하고, 그 사랑의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합니다.
- 월코의 프로그램 주제는 6년 주기로 주제가 순환하기 때문에 왔던 학생이 다음에 또 오더라도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멤버들과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2) 월코 프로그램 관련 질문

- 일반 육지캠프는 교회 사정에 따라 일정조율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5박 6일을 하고, 모멘텀 제주 캠프는 8박 9일로 제주도에서 진행합니다.
- SYME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9개월 영어학습 과정입니다. 평일에도 타이트하게 실시하여 단기간에 영어실력이 크게 향상합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 월코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합니다. "6학년~중2 / 중3~고3" 으로 연령이 구분되어 있고, 방학에만 영어캠프를 진행합니다.
- 캠프는 통상적으로 40-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12명 정도 모집이 된다면 캠프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캠프에 한번 왔다가 다시 재참여하는 아이들은 15~20% 정도 됩니다.
- 숙소는 월코 명의로 된 근처 아파트에서 취침하고, 식사는 월코 센터에서 다같이 합니다.
- 캠프 가격은 5박 6일에 45만원입니다.

3) 우리 교회와 협력 관련 질문

- 성락성결교회만의 캠프도 가능합니다. 6개월 전에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금액을 조율하고, 프로그램을 조율해서 가장 짧게는 2박 3일에서 길게는 6박 7일까지 캠프 구성이 가능합니다.
- 아이들을 미리 만나서 사전 교육과 데이캠프가 진행 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 추후에 필요하다면 학부모 대상으로도 월코 캠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월코는 절대로 교회의 성도들을 선동하거나 유혹하여 탈교회해서 선교단체에 속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월코의 직원들은 모두 각자의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중요시하며, 교회를 돕는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2024년 시애틀 사업 계획 보고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방문)

○ 목적

한국교회와 세계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성결교단의 자녀들을 글로벌 시대의 선두주자로 세우기 위해 교육의 도시 미국 시애틀에서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현지 원어민 선생님을 통한 생생한 영어교육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다.

시애틀 로고스 비전 스쿨을 통해 앞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예배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반응하고 도전하는 진취적인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킨다.

○ 일정 : 2024년, 7월말~8월 중순, 학생들 방학 기간 중 3-4주간

○ 장소 : Seattle in USA, Vancouver & Victoria Island In Canada

○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or 중학생

- * 또래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혼합하지 않도록 한다.
- * 영어뿐만 아니라 연령별 종합적인 수준을 최대한 맞춰서 현지의 교사를 배려하고 서로 간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 중학생의 경우는 한국에 돌아와서 학원 세팅 문제가 있음을 고려한다.

○ 추진 계획

가. 9월에 일정 공지 / 모집

나. 모집 인원을 토대로 학부모회 구성

다. 시애틀로고스라이프 교회와 사전 논의

- 일정 및 커리큘럼, 숙소 등 연수 관련 사전 협의

라. 학부모 총회 소집 후, 현지와 협의된 내용으로 설명회 개최

마. 협의회에서 사업 논의 및 확정 (비용 산정 / 커리큘럼 수정 및 확정)

- 시애틀로고스라이프 교회, 인솔 목회자, 행정실장, 담당 장로, 학부모회 총무까지 총 5인 협의회

바. 이후 학부모 협의회를 통해 실무를 추진

- 비행기 티켓 구입 및 연수 비용 적립, 보험 가입
- 여행을 위한 사전 교육

- * 교회에서는 행정과 재정적 지원 업무만 담당하고, 학부모회가 모든 일정과 계획의 주체가 되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책무감을 가지도록 한다.

○ 사업 추진 원칙

가. 개인별 연수비와 연수와 관련된 모든 지출을 합하여, 교회 지원 없이 1/N로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교회 지출은 인솔 목회자 항공료, TA 1인 항공료 지원
- 승용차 렌트가 필요할 경우 렌트비 포함 * 인솔 목회자는 국제면허증 발급

나. TA 1인을 모집할 때에는 인솔 목회자와 성별을 다르게 구성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 교회 후보 / 청년부 광고를 통해 모집

- 소정의 봉사료 지급. 단, 봉사료는 개별 연수비용에 포함하여 1/N
- 다. 캐나다 밴쿠버 일정은 버스타어로 계획한다.
- 라. 시애틀에서는 반드시 보잉사와 MS사 방문 일정을 포함시킨다.
- 마. 가능하다면 한 곳의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빠르게 추진하여 숙소문제를 해결한다.
- 바. 커리큘럼은 체험학습이 포함되도록 편성하되, 체육활동 등도 포함시켜 구성한다.
 -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 정서관리 필요
- 사. 학부모 설명회에 성폭력 및 성차별 예방 교육, SNS 예절 교육을 포함시키고, 방문 일정에 따른 사전 교육을 통해 경험치를 극대화한다.
 - 사전에 원어민 교육이나, 견학장소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학부모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비용이 발생하면 연수 비용에 포함해 1/N 하도록 한다.
- 아. TA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의 방학 과제 등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한다.
 -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방학과제나 학원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 기타 사항

- 가. 연수 중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한 채널 구축
- 나.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솔 목회자 체류 비용을 교회에서 지원
- 다. TA교사는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 방학 과제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파악
 - *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방학과제나 학원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전체 일정 (예시)]

							7/27 Sat
							• 인천공항 출발 • 시애틀 도착 • 오리엔테이션 • BBQ 파티
	7/28 Sun	7/29 Mon	7/30 Tue	7/31 Wed	8/1 Thu	8/2 Fri	8/3 Sat
1 주	• KM, EM 예배 • 미국알기OT • Red Lobster 저녁식사	* 원어민 수업 * 1 ~ 6 교시 • Library 도서관 둘러보기, 책대여 • Target 둘러보기 바인더구입하기	* 원어민 수업 * 1 ~ 6 교시 • Shake'nGo 수제버거 - 점심식사주문하기 • 영어일기쓰기	* 원어민 수업 * 1 ~ 6 교시 • Whole Foods Market 둘러보기 - 저녁식사주문하기 • 부모님께 편지쓰기	* 원어민 수업 * 1 ~ 6 교시 • Post Office 우체국방문 - 한국에 편지붙이기 • 공원산책,운동	* 원어민 수업 * 1 ~ 6 교시 • MOD Pizza - 저녁식사주문하기 • 영어일기쓰기	시애틀 관광① • Seattle Center 시애틀 센터투어
	8/4Sun	8/5 Mon	8/6 Tue	8/7 Wed	8/8 Thu	8/9 Fri	8/10 Sat
2 주	• KM, EM 예배 시애틀 관광② • Boeing Tour - 보잉투어 - 비행기 공장견학	* 원어민 수업 * 1 ~ 6 교시 • Library 도서관 책 반납및대여 • Dollar Tree 둘러보기및쇼핑	* 원어민 수업 * 1 ~ 6 교시 • Burgerkig 햄버거 - 점심식사주문하기 • 초,중학교 둘러보기 • 공원산책,운동	* 원어민 수업 * 1 ~ 6 교시 • Macy's 백화점 Alderwood Mall 둘러보기 - 저녁식사주문하기 • 영어일기쓰기	* 원어민 수업 * 1 ~ 6 교시 • Library 도서관 책반납하기 • Lynnwood Movie Theaters 영화관람	* 원어민 수업 * 1 ~ 6 교시 • Costco 둘러보기 - 저녁식사주문하기 • 영어일기쓰기	시애틀 관광③ • Seattle Downtown 시애틀 다운타운투어
	8/11Sun	8/12 Mon	8/13 Tue	8/14 Wed	8/15 Thu	8/16 Fri	8/17 Sat
3 주	• KM, EM 예배 • 밴쿠버여행OT • H-mart 둘러보기 - 저녁식사주문하기 • 여행가방정리	밴쿠버 관광① • Vancouver Downtown 밴쿠버 다운타운투어	밴쿠버 관광② • Vancouver Island 밴쿠버 빅토리아 섬	밴쿠버 관광③ • Vancouver Whistler 밴쿠버 휘슬러	• Seattle Premium Outlets 쇼핑 • 집정리 • BBQ 파티 • 비전나누기	• 시애틀 출발	• 인천공항 도착

[TEAM FEEDBACK]

마재열 : 이번에 탐방을 다녀온 영어캠프 월코(WOLKO)는 초6~고3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는 캠프였습니다. 대신 시애틀에 대해서 시애틀위원회와 이야기한 것은 시애틀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캠프와 시애틀에 방문할 수 있는 연령을 나누어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조남일 : 우리 지난번에는 시애틀에 어떻게 다녀왔었지요?

홍승현 : 그때도 5-6학년부터 중학생 정도까지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남일 : 시애틀 사업은 미국에 가서 건문을 넓히는 것에 초점이 있겠지요. 그곳에서 영어를 2-3주 해서 영어에 대해 특별한 성과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또 어학연수를 통해서만 영어를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조남일 : 지난번 다녀왔을 때는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인솔하는 목회자나 시애틀 로고스라이프 교회의 담임목사님과 사모님들이나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로고스라이프 교회에 대한 지원도 올해부터 20%씩 삭감되어 5년 뒤에 지원이 종료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일 :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을 한 번은 시애틀에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유럽 쪽에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가정형편이 가능한 아이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교회의 아이들이 해외에 나갈 나이가 되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동남아 쪽이라도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한 번씩 다녀오는 것으로 기획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이미 다른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마재열 :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해외선교에 아이들이 동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건문을 넓히는 것이 중점이라면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조남일 :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선교지에 따라가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모습만 보고 와야 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보고 배우는 것이 있지요. 물론 너무 어린아이들은 어렵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재열 : 네, 이번에도 몽골에 따라간 학생들이 좋은 경험과 기억들을 가지고 돌아왔더라고요.

박귀화 : 맞아요. 아이들이 꼭 선진국이 아니라 어려운 나라에 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도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을 자주 확인합니다.

조남일 : 현재 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시애틀과 함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수준의 다음세대를 위한 해외탐방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승현 : 저는 5학년의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애틀이든 필리핀이든 보내는 목적

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적이 단순한 해외 경험이라면 굳이 보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데리고 다니면 되기 때문이지요. 가족여행을 가서 더 좋은 추억, 더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는 것이라면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외국어를 왜 해야 하는지, 그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땅에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학부모로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조남일 : 맞습니다. 지금 홍승현 부감님이 말씀하시는 그 프로그램이 저는 지금도 시애틀에 어느 정도 잘 녹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학부모들에게 다 공개하고 떠나고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리핀 같은 동남아를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만 잘 만들어서 운영해 준다면 저는 어디든 괜찮다고 봅니다.

마재열 : 그런 취지라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선교활동을 아이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조남일 : 이번에 몽골 다녀왔을 때, 아이들이 10명 정도 함께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경험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마재열 :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애틀을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건문을 넓힌다는 차원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차원의 건문이 아니라 더 크고 앞선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여 글로벌한 비전과 리더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박귀화 :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꿈이지요. 취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목돈을 지불하면서도 시애틀에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신 것이지요.

마재열 : 네, 그래서 내년에 갈 시애틀은 부모님들이 직접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시애틀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애틀위원회의 제안과 지난번 부모간담회에서 나온 제안과 일치합니다. 부모님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일 :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솔자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아이들을 10명 이상 인솔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인솔 목회자가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 튜터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재열 :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영어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시애틀은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그리고 영어캠프는 중고등학생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학교 시범 운영 결과 보고

작성자 : 마재열 전도사

○ 운영목적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가지고 말씀삶공동체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주말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시범 운영을 통하여 주일 오후에 부모들의 동네세메줄 소그룹 모임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주말학교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학생 참여도를 가늠하여 향후 사업에 참고한다.

○ 일시 : 2023년 8월 20일(주일), 오후 1시~4시(3시간)

○ 회비 : 하루 1만원

○ 대상 : 10교구 다음세대(사무엘/요셉/다윗) 전체

○ 신청인원 (총 105명)

사무엘 (42명)		요셉 (49명)		다윗 (14명)	
유아	어린	유년	소년	중등	고등
18	24	36	13	10	4

○ 재정사용

수입		지출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참가비	1,050,000	간식비	271,060
교회 지원금	400,000	재료비	799,800
		선물비	100,000
수입 총액	1,450,000	지출 총액	1,170,860
잔액		279,140	

○ 클래스별 신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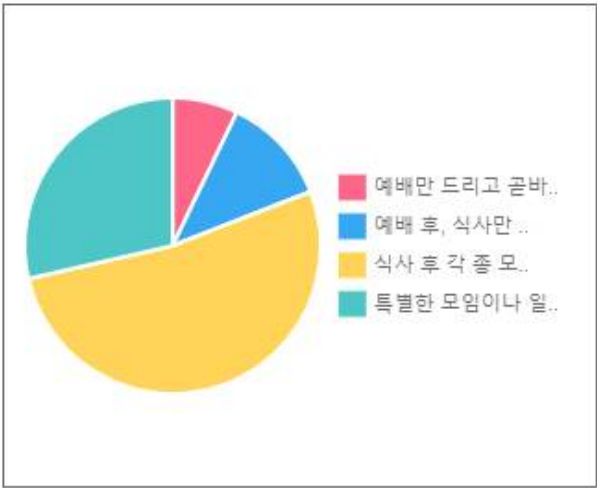
/	사무엘 부서	요셉 부서	다윗 부서
13:00~ 14:00	“ 영어찬양 / JEBS ” - 담당자 : 이선화 집사 - 장소 : 603호 - 인원 : 15명	“ 쿠키 클래스 ” - 담당자 : 김한나 집사 - 장소 : 401A호 - 인원 : 24명	“ 통기타 수업 ” - 담당자 : 마재열 전도사 - 장소 : 1001호 - 인원 : 4명
	“ 태권도 ” - 담당자 : 하민숙 집사 - 장소 : 209호 - 인원 : 20명	“ 바둑 교실 ” 폐 강	
		“ 축구 수업 ” - 담당자 : 김호진 전도사 - 장소 : 향림공원 - 인원 : 23명	
14:00~ 15:00	“ 쿠키 클래스 ” - 담당자 : 김한나 집사 - 장소 : 603호 - 인원 : 26명	“ 영어찬양 / JEBS ” - 담당자 : 이선화 집사 - 장소 : 401A호 - 인원 : 5명	“ 풋살 ” - 담당자 : 마재열 전도사 - 장소 : 향림공원 - 인원 : 10명
	“ 축구 수업 ” - 담당자 : 김호진 전도사 - 장소 : 꿈인 풋살장 - 인원 : 15명	“ 태권도 ” - 담당자 : 하민숙 집사 - 장소 : 209호 - 인원 : 12명	“ 탁구 ” - 담당자 : 지진경 권사 - 장소 : 1001호 - 인원 : 10명
		“ 프라모델 만들기 ” - 담당자 : 강용우 선생님 - 장소 : 301호 - 인원 : 28명	
15:00~ 16:00	“ 구연 동화 ” - 담당자 : 임다혜 사모 - 장소 : 301호 - 인원 : 35명	“ 워십 댄스 ” - 담당자 : 김성중 청년 - 장소 : 209호 - 인원 : 15명	“ 워십 댄스 ” - 담당자 : 김선형 청년 폐 강
		“ 탁구 ” - 담당자 : 지진경 권사 - 장소 : 1001호 - 인원 : 20명	“ 실용 음악 (보컬) ” 폐 강

[주말학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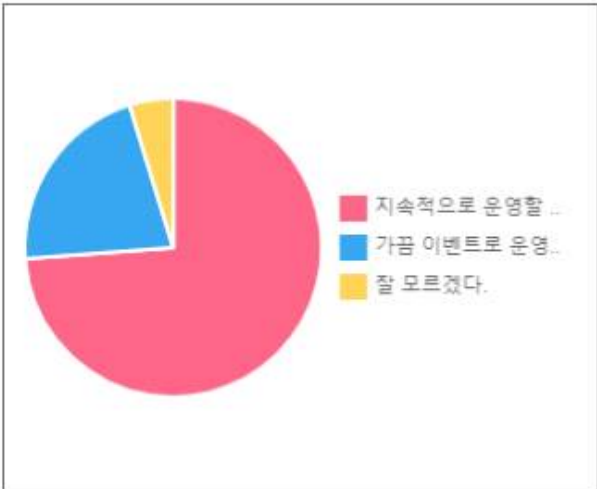
○ 부모님 피드백 (42명 응답)

1. 평소에 예배 이후, 오후에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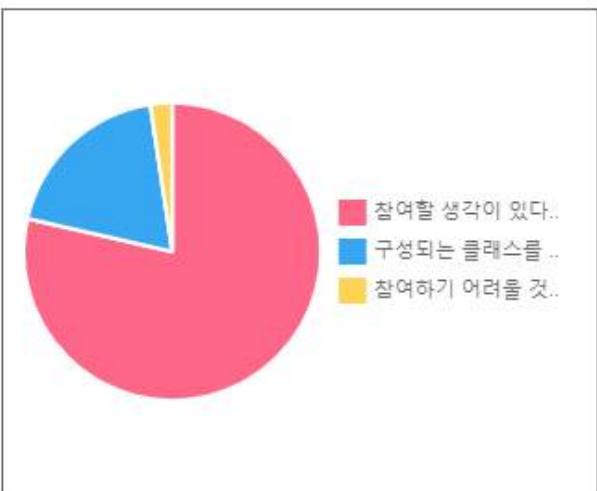
응답	응답수
예배만 드리고 곧바로 귀가한다.	3 7.1%
예배 후, 식사만 하고 귀가한다.	5 11.9%
식사 후 각 종 모임을 마치면 귀가한다.	22 52.4%
특별한 모임이나 일이 없더라도 자녀와 다른 부모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다 귀가한다.	12 28.6%

2.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말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수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1 73.8%
가끔 이벤트로 운영하는 정도면 괜찮다.	9 21.4%
잘 모르겠다.	2 4.8%

3. 내년 사업으로 주말학교가 운영된다면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응답	응답수
참여할 생각이 있다.	33 78.6%
구성되는 클래스를 보고 고려하겠다.	8 19%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	1 2.4%

4. 자녀들 주말학교 수업 중에,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	☐	응답	응답수
☒	☐	동네세메플 소그룹, 또는 다른 성도와 교제했다.	24 57.1%
☒	☐	혼자만의 시간 또는 배우자와 조용히 쉬었다.	12 28.6%
☒	☐	아이들을 따라 다니며, 클래스에 참관했다.	3 7.1%
☒	☐	교회에서 다른 봉사로 섬겼다.	3 7.1%

5. 클래스 구성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주세요.

- 1) 부모들이 비용을 함께 지불하여서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하여 프로그램들이 실시하지 않고 행복한 시간으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2) 아직 모든 면에서 서툰 미취학 아동들의 적절한 클래스가 더 필요합니다.
- 3)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하루 참여가 아니라 한 달, 또는 몇 주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분위기를 만들면, 그 안에서 관계도 형성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 4) 어린아이들의 클래스일수록 충분한 보조선생님이 필요합니다.
- 5) 연령을 더 세분화하면서 수준별로 진행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6) 목상 나눔이 대부분 3시쯤 끝나는 것을 고려하여, 1~3시 사이에 더 다양한 클래스를 개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7) 클래스마다 제한 인원을 사전에 신청받아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8) 부모 도우미 선생님들을 미리 모집하고 섭외하면 진행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 9) 월별 / 분기별 / 학기별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수업을 구성하여 아이들이 수료하고 성취감과 성장성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10) 클래스를 마친 후 다음 클래스로 이동할 때 어린아이들을 인솔해 주면 좋겠습니다.

6. 주말학교 운영에서 발견 된 행정 문제를 설명해주세요.

- 1) 엘리베이터가 홀짝으로 운영되어 클래스 이동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 2) 교실 동선 이동을 고려한 수업 장소 선정이 필요합니다.
- 3) 부모들이 아이들 인솔 때문에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야 해서 모임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인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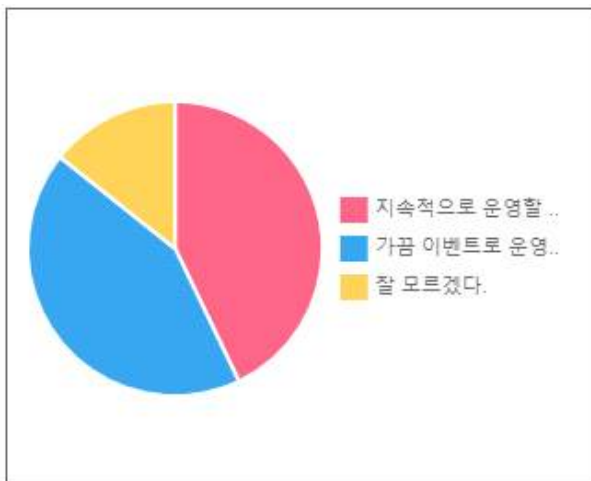
- 4) 접수를 3층 로비에서 했다면 덜 복잡하고 홍보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 5) 재능기부하실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가끔 봉사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매주일 하려면 힘들실 것 같습니다.

7. 원하시는 클래스 혹은 소개하고 싶은 강사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 1) 미술 / 성경암송 / 기독교성교육 / 자녀가 함께 하는 부모교육
- 2) 동화책 읽고 독후활동하기 / 캘리그래피
- 3) 찬양을 배우는 음악 수업
- 4) 두뇌프로그램 / 다양한 체육활동
- 5) 발레 / 클레이 / 만들기 / 종이접기 / 놀이체육 / 영어
- 6) 재미있게 듣는 성경 역사이야기
- 7) 어린이 필라테스
- 8) 악기 / 코딩 / 독서클럽(논술) 등

○ 강사 피드백 (7명 응답)

1.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말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수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42.9%
가끔 이벤트로 운영해도 괜찮다.	3 42.9%
잘 모르겠다.	1 14.3%

2. 내년 사업으로 주말학교가 운영 된다면 강사로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응답	응답수
☒ 필요하다면 참여하겠다.	4 57.1%
☒ 고민을 해보겠다.	3 42.9%
☐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	0 0%

3.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클래스 내에서 어려웠던 점을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1) 도우미 선생님 배치, 책상 배치 등 사전에 요청드렸던 부분들이 잘 되어있지 않아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투입되어 도와주셨습니다.
- 2) 강사들이 이동하다 보니 수업에 필요한 장비세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태권도와 탁구 처럼 수업 장소를 고정하고 아이들이 이동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3) 태권도의 특성상 고급반/중급반으로 나누어 클래스를 운영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어린사무엘부터가 적당합니다. ex) 6~9세, 10세 이상
- 4) 야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클래스는 날씨로 인해 힘든 기색을 보였습니다.
- 5) 워십의 특성상 50분 안에 안무 숙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쫓겨 강의를 하다 보니 촉박했습니다.
- 6) 아이들의 이름을 몰라서 수업 진행이 더뎠습니다. 이름표를 마련해주시면 친밀도도 높이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7) 차후 지속적으로 주말학교가 운영된다면 깊이 있는 독후활동을 위해 연령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4. 강사로 진행하면서 운영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1) 지속적인 교육을 계획한다면 체계적이고 사전준비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전담포토그래퍼 배치, 지원스텝 배치, 각 호실별 시간, 프로그램 안내표지 부착 등
- 2) 아이들이 시간/장소를 헛갈려해서 중간중간 안내해주시는 스텝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3) 엘리베이터 이용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동 동선을 4~6층 / 1~3층 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명찰과 시간표 (명찰 뒷면에 수업장소 표기)가 필요합니다. 각 클래스 교사에게 신청자 명단을 지급해서 출석 체크와 연락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5) 사무엘부서는 40분 수업이 좋을 것 같고, 보조교사와 인솔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수업이 진행된다면 부모들 소그룹 모임을 고려해서 당번제나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돕도록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 6) 주일날 진행이 되다 보니 청년부 강사분들이 강사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5. 강사로 봉사하고 섬겨주시면서 느낀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1) 강사로서 많이 부족한 점을 느꼈습니다. 커리큘럼이나 강의안 등이 잘 갖춰진 전문강사의 섭외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급히 섭외되어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열정으로 서는 자리는 아닌데 준비가 부족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 2)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관심 갖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또 새 친구와 장기결석하던 친구가 참여하는 것을 보며 다음세대 사역과 목상소모임 활성화에 좋은 구심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 3) 수업을 마치고 3시가 넘었음에도 교회 안 이곳저곳에서 나눔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 4) 다른 부서의 아이들과 알게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느꼈습니다.
- 5) 아이들과 탁구를 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 6) 아이들에게 워십의 참된 기쁨을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강사인 저도 순수한 기쁨의 찬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7)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보면서 주말학교가 꾸준히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6. 소개하고 싶은 클래스나 강사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 1) 다양한 직업군의 성도님들이 계실 테니 직업소개 프로그램이라던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라도 기독교적 생명 성교육 & 미디어 교육, 목상소그룹의 연장선으로 하브루타, 어린이전도협회나 어와나 같은 기독교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탄절이나 연말 발표회, 전시회 등으로 이어지도록 해도 좋을 것 같아요.
- 2) 샌드위치 만들기나 피자빵 만들기 같은 간단한 쿠킹클래스가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TEAM FEEDBACK]

마재열 : 주말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0명이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조남일 :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재열 : 네, 그렇습니다. 주일에 다음세대 아이들 출석 평균이 250명 정도인데, 100명이 참석했으면 매우 많은 인원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한 것입니다.

조남일 :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있었군요.

마재열 : 그리고 행사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부모님들은 75%가 긍정적이었지만, 강사들은 50%만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헌신을 하는 사람은 힘에 부치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홍승현 : 저는 이 피드백을 아이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 애들도 분명히 있을텐데요.

조남일 : 저도 그날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주가 참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늦게까지 남아서 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좋았습니다. 그런데 애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솔직한 표현을 잘하거나, 수집이 잘 될까요?

마재열 : 아이들이 만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재미가 없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재밌게 만들고 보완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보완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든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마재열 : 예를 들면, 일부러 인원 제한이 없이 모집을 했고, 최초 안내와는 다르게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즉석에서 수용했습니다. 최대 어디까지 신청이 들어오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질이 떨어진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한, 클래스도 일부러 많이 개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클래스가 모자라다는 의견과 집중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었습니다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클래스를 개설했습니다. 어떤 클래스에 니즈가 있는지 연령별로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강된 클래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대부분 다 예상된 피드백들이었고, 실제로 이번 행사는 운영면에서 많이 미흡했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운영이 된다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마재열 : 다만 통계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문에 응하신 약 70-80%의 부모님들은 오후에 교회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주일에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층 꿈인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100명까지는 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남일 : 아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재밌더라도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아이들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주변에 산다고 하더라도 아이들끼리 손잡고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도 주일에 방과후 학교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50%가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보고, 점검을 하면서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탁구 치는 아이들을 보러 갔더니, 아이들이 30명이나 탁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주일에 탁구교실을 만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마재열 : 동의합니다. 피드백들을 보면 뭔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상태로는 매주 주말학교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사 섭외의 문제가 가장 큼니다. 매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조남일 :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그 주기를 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은 한번은 부담될 수 있을 것 같고, 분기에 한 번은 또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선생님들에게 헌신을 잘 요청드릴 수 있는 방법과 동기부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재열 : 어느 정도의 주기가 좋을 것 같으신가요?

박귀화 : 두 달에 한번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잘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으로 늘리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한 달로 하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일 : 저도 두 달에 한번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기에 함께 할 선생님들을 잘 찾아서 교회적으로 지원을 하고, 부서에서도 잘 도와서 주말학교가 기다려지도록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재열 : 맞습니다. 이것도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데요, 격월로 진행을 했을 때 아쉬운 점은 수업에 연속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탁구도 두 달에 한번 올 때마다 새롭게 배우는 느낌일 것이고, 영어수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미위주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또 주기가 짧아지면, 모두에게 무리가 되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지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남일 : 그렇군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잘 준비를 해서 예결위에 포함을 시키고 내년 사업으로 잘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귀화 : 저는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생각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주일에 생각보다 행사가 많고 바빠서 한 달에 한번 준비한다고 해도 겹치는 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애매합니다.

조남일 : 그렇지요. 만일 이것을 하게 된다면, 교사나 교역자들은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박귀화 : 이번에 프로그램을 했던 것 중에 반응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나요?

마재열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강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재미없는 프로그램도 강사가 재밌게 만들 수가 있고, 반대로 좋은 프로그램도 흥미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강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프로그램도 아이들마다 반응이 다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보다 강사가 더 중요합니다.

조남일 :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섭외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따로 섭외를 해야 하나요?

홍승현 : 저와 마재열 전도사님이랑 이번에 강사를 섭외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교회학교 교사들은 놓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1부 예배부터 쉬지 않고 주일날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오후까지 남아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가 아닌 일반 성도분들 중에서 강사를 섭외해 보자는 것이 이번 컨셉이었습니다.

조남일 : 홍 부감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네요.

홍승현 : 네, 그러나 이것의 단점은 일반 성도님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이들의 이름이나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남일 : 그것은 아이들에게 이름표를 부착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에 연속성이 생긴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재열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강사를 외부에서 페이를 주고 섭외하면 좋겠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일인데, 전문성을 이유로 밖에서 돈을 주고 사람을 쓴다면 퀄리티는 높일 수 있을지언정 교회라는 특성보다 문화센터처럼 생각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흡할지언정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남일 : 동의합니다. 외부 사람을 불러다가 쓰는 것은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교인이 하는 것이 더 좋지요.

마재열 : 네, 교회 안에서는 이를 진행하는 선생님에게도 유익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홍승현 :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 강사도 소모임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면 소모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조남일 : 아마 교회 안에 숨어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홍승현 : 네, 강사들을 어떻게 발굴해 내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했던 태권도도 연속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영어 JEPS 프로그램도 흐름이 끊기면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마재열 : 우리가 취지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친 다음에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돌봄에 가까운 접근으로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사랑을 심어주고 싶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승현 : 어쨌든, 저는 이번 주말학교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새신자로 왔던 2명이 함께 참여했고, 부모님을 처음 뵈고 적응해 가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더 보내면서 정착하는 분명한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재열 : 저는 드디어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는구나 싶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관심을 받는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보다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을 갖고 대하고, 남의 아이처럼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로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홈스쿨러 독서 학교 기획안

○ 취지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전수와 기독교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회 내에서 방과 후 홈스쿨링의 형태로 독서 모임을 운영하여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과 니즈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려함.

○ 목표

1. 대안 교육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부모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교회 안에 모범가정 및 리더가정으로 세운다.
2. 독서 학교를 통해 대안 교육에 관한 교회적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제시하여 교회와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한다.
3. 부모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침체되어 있는 3040의 분위기를 고무시킨다.
4. 부모가 앞서 걷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신앙적 가치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공동으로 육아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 진행 방향

1. 부모들의 관심과 요구에 응함과 동시에,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여, 자생력을 갖춘 지속성 있는 모임이 되도록 한다.
2. 공간 사용에 대해서는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기에, 꿈인(6층)을 모임공간으로 개방하고, 603호(어린사무엘 예배실)를 중심 공간으로 활용한다.
3. 담당 목회자가 자녀와 함께 부모로서 참여하고, 전반적인 사항들을 조율한다. 다만, 방향을 제시하되 부모가 주체적으로 활동하도록 최소한의 개입을 한다.
4. 관리감독과 독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운영할 수 있는 대안교육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한다.

○ 프로그램

1. 가정-교회-학교의 연계를 철학으로 삼고 교육하고 있는 D6코리아의 주말 학교 독서프로그램인 ' JL Academia '를 도입한다.
2.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고전문학교육을 통해 철학을 세우고 주중으로 확대되는 대안학교의 기반을 다진다.
3. 주말 학교에서 배운 것을 주중에 가정에서 활용하며 하브루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4. 연령별 커리큘럼을 적용한다. (미취학/저학년/고학년/중학생/고등학생)
5. 학기제(봄/가을)로 운영하고, 첫 임상은 6주 프로그램으로 훈련한다.

○ JL (Jesus is the Lore) Academia

JL (Jesus is the Lore) Academia는 D6코리아에서 실시하는 주말 독서학교 프로그램으로, 주중 대안학교를 실시하기 전에 기반이 되는 교회와 부모의 철학을 교육하는 독서학교 프로그램이다. 학교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JL Academia에서 사용하는 커리큘럼은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홈스쿨링 독서프로그램인 “Progeny Press”를 사용한다. 영어 원서로 되어있는 프로그램을 한글로 번역하고 사용하고, 한국의 고전 문학을 따로 선별하여 사용한다. 모든 책들은 고전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안 교육의 여러 형태 중에서 고전교육의 형태를 따른다.

선별된 고전 문학 안에서 성경적 의미를 찾고, 각 나라의 문화, 역사, 지리, 사회, 인물들로 영역을 확장하고 하브루타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6단계의 학습과정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립하고, 문학적 기술과 용어들을 구사하는 능력을 키워서 좋은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비평적 생각, 분석, 그리고 보다 심화된 이해를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언어와 생각이 포함된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 “Progeny Press” 의 6단계의 학습 목표

- 1) Vocabulary (단어 능력)
- 2) Reading Comprehension (문장 이해 능력)
- 3) Critical Analysis (비평적 분석 능력)
- 4) Literary Techniques (문학적 기술 능력)
- 5) Biblical Applications (성경적 적용)
- 6) Enrichment writing and projects (압축된 글쓰기 훈련)

※ “Progeny Press” 의 독서 장르

- 1) 문학 (한국/미국/영국/세계)
- 2) 셰익스피어
- 3) 시
- 4) 역사서
- 5) 기독교문학

○ 주중 대안학교의 발판

JL (Jesus is the Lore) Academia의 고전교육을 통한 학부모 철학교육이 지속하며 부모가 주체가 된 기독교 대안교육의 가치를 분명하게 정립하며 자연스럽게 주중 대안학교로 넘어가도록 훈련하고 독려한다.

향후 주중 대안학교가 진행된다면, 미국학교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사용하여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참고자료] : Progeny Press Study Guide

독서 스테디 가이드 / 목차	독서 사전 활동
The Courage of Sarah Noble Study Guide Table of Contents Note to Instructor4 Synopsis5 About the Author6 Background Information7 Before-you-read Activities8 As-you-read Activity9 Chapters 1 & 210 Chapters 3 & 414 Chapters 5 & 619 Chapters 7 & 823 Chapters 9, 10 & 1126 Activities, Arts and Crafts30 Crossword Puzzle33 Suggestions for Further Reading35 Answer Key36 © 1993 Progeny Press No copy of this study guide may be made. 3	The Courage of Sarah Noble Study Guide Before-you-read Activities 1. Define courage in your own words. 2. Look at a United States map and find Connecticut. Describe what you imagine it would be like as total wilderness. 3. Where do people stay now when they travel? What would it be like to knock on a stranger's door and ask for a place to stay? 4. What kinds of homes did the settlers build? What building materials did they use? Who did the building? 5. Indian tribes were all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Some were peaceful, some were not. Many tribes fought with each other even when they were friendly to white men. Why are some people peaceful? Why are some warlike?
단어 교육	독서를 위한 심화 질문들
The Courage of Sarah Noble Study Guide Chapters 1 & 2 Vocabulary: Define these words or phrases and use them in a sentence. 1. settlement 2. musket 3. heathen savage 10 © 1993 Progeny Press No copy of this study guide may be made.	Questions: 1. Why do you think Sarah said she would go with her father? Would you have gone? 2. Sarah misses her family. Describe two things she remembers about her mother. © 1993 Progeny Press No copy of this study guide may be made. 11 The Courage of Sarah Noble Study Guide 3. Read Psalm 4:8. "I will lie down and sleep in peace, for you alone, O Lord, make me dwell in safety." The Lord watches over us while we sleep just like a father watches over his children. Why did Sarah's father stay up all night as she slept?

[Supervisor Profile]

최소영 전도사 D6코리아 교육총괄 (번역팀&학교팀 팀장)



2001년 이후 아래와 같은 분야를 섬겨왔다.

- 선교단체 Singsperation (싱스퍼레이션) 간사 (미국)
- 두 번의 교회개척과 팀목회 사역 (미국 유비엠포교회, 한국 뷰티풀교회 교육부 디렉터)
- LA 32st Elementary School에서 초등학교 4학년 보조교사 (미국)
- 안양대학교 영문과 전임강사 (한국)
- 박정어학원, YBM에서 GRE, TOEFL 강의 (한국)
- 영자신문 KOREA TIMES 칼럼니스트 (한국)
- 출판 : 두산동아 포토익 저자 (한국)

* Academic Background

-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횃불트리니티) MA in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석사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Master of Education 교육학 석사

[TEAM FEEDBACK]

마재열 : 먼저 대안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점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경쟁구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홈스쿨이나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고, 대안교육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우리 안에서도 대안교육을 이해하는 모습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재열 : 우리 교회 안에도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대안학교에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용기가 안 나서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로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자녀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면, 그것이 대안교육이고 대안공동체이고 일차적인 대안학교입니다.

마재열 :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안교육에 대해 너무 많이 앞서 걱정하시는데, 그전에 필요한 단계들이 있고,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이전에 신앙적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공교육을 다니는 부모님들도 포함되는 이야기이고, 기관에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홈스쿨을 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은 기관이나 커리큘럼 이전에 부모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아직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마재열 : 그래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 좀 어떻게 신앙적으로 키워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예배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가지 않으면 자생력이 생기지 않고, 부모가 철학이 세워지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한들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조남일 : 제가 대안교육기관을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군요. 저는 모든 것을 세팅해 놓고 갖추어졌으니 모 집을 해서 시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학교를 세우면 학교장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고, 양질의 교사, 고가의 교사와 많은 재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앞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재열 : 네, 그 인식의 차이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단계를 오랜 시간 거쳐서 이상적으로 발전했을 때의 모습인데, 그 모습부터 미리 생각을 하시니 여러 가지 우려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우리 아이들을 위탁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키운다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더 큰 필요성이 논의된다면, 그때 가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홍승현 부감님이나 저처럼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부모님이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조남일 : 전도사님이랑 홍승현 부감님, 자녀가 지금 대안학교를 다니나요?

홍승현 : 네, 지금 10층 빛의자녀학교에 다닙니다.

마재열 : 네, 저도 지금 8살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을 합니다.

홍승현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건 교육과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해마다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는 교회 대안교육

사역에 부모님들이 올인해서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베이스가 깔려있어야 합니다.

마재열 : 네, 그래서 그 베이스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베이스가 이런 쪽에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의 모임으로 출발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남일 : 대안교육기관을 크게 접근하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큼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커다란 사업으로 접근을 하면 교회 전체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재열 : 그렇지요. 그렇게 접근하면 아무것도 시작을 못합니다. 그러나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기반을 다져나간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다고 해서 당장 차주부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그만두고 나오라는 극단적 제안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되, 내 가치관을 다시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안교육을 시작하고 접근하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다녀도 대안교육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교육에 보내지 않아도 대안교육이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부터 새롭게 배워나가야 합니다.

홍승현 : 만약 그렇다면, 저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학교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언제나 있어왔던 니즈입니다.

마재열 : 홍승현 부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부모교육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교육이 자녀교육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함께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홍승현 : 부모학교가 되어야겠네요. 부모의 마인드가 먼저 기독교 교육의 관점 안에서 자녀를 키워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것에 하나의 방향으로 내가 대안교육기관에 보내던지, 홈스쿨링을 하던지 그 이후에 나아갈 수 있겠지요.

마재열 : 네, 맞습니다. 마음이 있는 부모들이 모여 함께 철학을 공유하고, 강화하고, 작은 것부터 부모교육과 자녀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일 : 아, 그렇군요.

박귀화 : 그 말씀이 맞네요.

조남일 : 지금 10층 대안학교는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홍승현 : 한 100명, 200명 되나요?

조남일 : 지금 그 학교는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홍승현 : 아니요, 매년 적자입니다. 또 빛의자녀교회와 설립자가 아직까지 많은 후원을 하고 있고, 거의 교사들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정말 사명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교사를 어떻게 섭외하고 키워낼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마재열 : 네, 교사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커리큘럼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자기주도학습과 부모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정도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커리큘럼에 두 가지 버전이 다

있습니다.

마재열 : 대안학교의 약점 중에 하나는 비싼 학비입니다.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편적이지가 않고,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엘리트주의와 세상의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육이 되려면, 인건비나 가격을 낮추고 부모의 헌신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비싼 학비로 퀄리티를 충분히 높이면서 가난한 아이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조남일 : 전도사님 설명을 들으니깐 내가 너무 확대시켜서 이해를 하고 있고, 미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해지네요.

마재열 : 네, 그 차이를 제가 줄이고 싶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빛의자녀학교 같은 기관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재정만 투입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모집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자생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패하게 될 것이고, 수익사업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홍승현 : 동의합니다. 빛의자녀학교도 한명에서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마재열 :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음을 키워나가면서, 부모와 아이들이 울고불고하면서 끌고 나가야지 조금씩 천천히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방한칸에서 모이는 것부터 출발하면 충분합니다.

홍승현 : 교회수첩에도 항상 나오는 아버지학교, 마더와이즈, 성경적 부모교실, 이런 젊은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모임들이 그냥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들을 훈련하는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재열 : 네, 부모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들의 모임만 최소 6개월-1년을 해도 의식을 공유하기에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그다음입니다. 그러나 부모만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밀접하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마재열 : 그래서 대안교육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들리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서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남일 : 그런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